

선사의인 타로 이야기

타로란 인간에게 삶의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는 도구로 여겨진다. 그림으로 나타난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삶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선택하기 곤란한 일이 있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영업 실적도 부진하고, 과거에 돈을 많이 잃으신 것 같아 보이네요.”

“예, 사업을 벌였다 말아 먹고, 다시 현재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수입이 워낙 변변치 않은지라...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옮길 수는 있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급신겨려야 할 상으로 비쳐집니다. 만약에 옮긴다면 임시적으로나 갈 수 있겠지만만 자리가 불안합니다. 가능한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두 오브 소드 카드는 한 여인이 두 눈을 가리고 양팔에 검을 들고 해변가에 앉아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배경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두개의 검이란 차원에서 양자택일을 의미한다고 전통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양자택일이란 무엇일까? 또는 어떤 상황에서의 양자택일일까? 대부분의 타로 리더들은 이 카드를 단지 양자택일의 관점으로만 읽는다. 단지



내면의 대립과 마비

카드의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기에 부정적 관점의 양자택일 문제라고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카드의 주인공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레스테스를 묘사하고 있다. 오레스테스는 그의 어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버지인 아가멤논의 대결 상황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두 눈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두개의 검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카드는 모권과 부권의 갈등 속에 자신을 차단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공포감과 관계의 차단을 잘 묘사하고 있다. 주인공은 애써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곧 어느 한 편으로 기울게 되는 균형에 다름 아니다. 다음의 카드가 쓰리 오브 카드이기에 대립속의 균형, 대립속의 마비상태는 곧 커다란 실망과 상처, 고통을 몰고 오게 된다.

단 아직은 주인공이 두 눈을 가리고 있기에 앞으로 다가올 고통의 폭풍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현실은 불쾌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달리 저항하거나 조치할 만한 수단이 없다. 그의 외부에서 오는 근본적 갈등에 판단 능력이 마비된 상태이고 자신의 역량 또한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검의 관점에 초점을 둔다면 스트레스가 심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선택하기 곤란하고 애써 외면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주인공을 괴롭히고 있다. 이 카드 옆에 악마 카드라도 부가된다면 직장에서의 상사에 괴롭힘 당하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몹시 과도한 상황이라 봐야 한다. 주인공은 애써 불행을 외면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건 결코 아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문제가 마치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방아쇠가 당겨지고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가 가슴을 활취고 간 뒤에야 주인공은 바로 이 상처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 그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여전히 현실은 불쾌하고 자신의 힘이 모자라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상태이다. 이 카드가 나오면 당사자는 겉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타로하우스선사인010-2825-7931

최인태의 사주칼럼

오후 늦게 청년 두 명이 들어왔다. 생김새가 많이 닮았으나 형제였다. 동생은 키가 크고 마른형의 동방(東方) 목(木)형의 사주를 가졌는데 사주에도 목화(木火)의 기운이 강했다. 사주의 용신(用神)에 금수(金水)가 되니 외형은 살집이 있고 동그란 얼굴형이 좋았으나 사주와 같은 목화의 기운을 가지면 관상으로 보완되는 기운이 없으므로 태어난 사주 그대로 살게 된다.

그의 사주에는 직업이나 시험운을 상징하는 관성이 약했다. 특히 이마의 천정, 사공, 중정으로 일컬어지는 관록궁은 움푹 파여 있었다. 관록궁은 중요한 곳이다. 고관이나 거부는 이 부분이 죽은데가 없다.

고서(古書)에 관록궁은 아름답고, 끝이 죽지 않고 동물의 간을 얻어놓은 듯한 두둑하게 생긴 사람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귀인의 천거를 입는다 했고 이마가 쑥 들어가고 흡이 있고 균형이

각자의 인생

안 잡혀있으면 직장을 변경하고 지위도 향상 고민에 헤어 나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런 사람을 상담할 때 첫 번째 초사는 “공부 방향을 잘못잡으면 만년 수혈생이요,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네요. 건강도 꽤 약하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단지게 된다.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안됐고요,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요?”라고 물었다. 상학(相學)에서는 ‘고관은 코보다 이마가 훨씬 중요하고 상인은 이마보다 코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의 코 끝은 좋았으나 코의 뿌리인 산근이 없었다. 코는 재백궁으로 재물을 보는 것인데 뿌리가 없는 것이다. 사주에서도 돈창고가 없었다. “장사는 더욱더 안됩니다. 그냥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니 옆에 있던 형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게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같은 형제지만 일단 형님이란 사람의 목소리는 단전(丹田)에서 나왔고 목직하고 청아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기운이 안정돼 있다는 증거이다. 무엇보다 인당, 준두라고 하는 코 뿌리와 관록궁, 보덕궁, 일월각, 천창등 코부터 이마 전체가 확 살아있었다. 한 부모아래 태어났지만 각자 다른 기운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형은 현재 공무원이었고 가정도 원만했고 무엇보다 동생에게 필요한 기운이 형에게 들어있었다. “형제라서가 아니라 동생에게는 좋은 귀인(貴人)이 되네요. 동생에게 도움이 분명히 되고 좋은 여자도 소개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줬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태어난 사주와 운이 없어도 잘사는 경우가 있다. 위의 사례처럼 옆에 있는 가족이나 부인 또는 자식도 귀인이 될 수 있다. /천문역원(062-673-2427)

유순식의 e-toon

사위와 며느리

유 순 식 SSyul@kjdai2.com



클릭! 인터넷 세상

화산 폭발



17일(현지시간) 멕시코 중부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날말퀴즈

(제2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가로열쇠

- ① 눈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이나 하나의 구역.
- ② 아침을 하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
- ④ 군주와 제후 사이의 주종 관계를 바탕으로 확립했던 정치 제도.
- ⑥ 주로 중부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종(흑인종을 통틀어 일컫기도 함)
- ⑧ 개의 낱알.
- ⑩ 태양의 채층 바깥쪽에 있는 높이 수백만 km에 이르는 가스층. 개기 일식때 눈으로 볼수 있음. 백광.
- ⑫ 소를 넣어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⑬ 마음속으로 하는 요량이나 판단. (연필이나 수판을 쓰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계산.
- ⑭ 빛깔의 세가지 속성의 하나. 빛깔의 선명한 정도.
- ⑮ 점으로 이뤄진 맹인용의 글자. 두꺼운 종이 위에 도드라진 점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나타내 맹인이 손가락으로 먼저 읽을 수 있도록 함.

▶세로열쇠

- ① 의론이나 사고·추리 따위를 끌고 나가는 조리. 사물속에 있는 도리. 또는 사물끼리의 법칙적인 연관.
- ② 임시로 꾸며 대어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대책.
- ③ 출가해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스님.
- ⑤ 재래식 타자 농구의 한 가지. 긴 작대기 끝에 회 초리를 잡아매고 휘둘러 곡식을 두들겨 뿜.
- ⑦ 그물눈과 그물눈 사이의 매듭.
- ⑨ 범죄 사건 따위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증명. 또는 그 증명을 뒷받침하는 사실. 부제 증명.
- ⑩ 어떤 수를 다른 수로 나누는 일. 또는 그 셈법.
- ⑫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 자연계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로부터 양분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생물.
- ⑬ 빠르기. 물리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220회 날말퀴즈 정답

	이	문	고	관	
	관		관	관	
10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2013년 10월 1일 OPEN

▶ 3.3㎡ 당 임대료 200만원
-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 3.3㎡ 당 임대료 200만원
- 지하 수영장 3.3㎡ 당 80만원
- 볼링장, 골프장 3.3㎡ 당 150만원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